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23.(화) / 총 5매(본문3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·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김경현 ·☎ (044) 201-4138, 413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4월 23일(화) 15시 제주 성산읍체육관에서 “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” (이하 기본계획 용역) **중간보고회**를 개최하였습니다.
 - * (사업규모/사업비) 활주로(3,200m), 터미널, 접근도로 등 / 4.87조원
 - ** (용역기관) (주)포스코건설 // (용역기간) '18.12~'19.6 // (용역비) 38억원
 - *** ‘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’ 결과(‘18.12) ‘문제없다’ 라는 결론에 따라 기본계획 착수
- 당초 중간보고회는 1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정협의를 따라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한 검토위원회가 재가동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이를 존중해 23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.
-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그간의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제주 항공수요 예측결과와 활주로 배치 방안, 터미널 계획, 공역 및 비행절차 검토, 주민상생 방안 등을 공개하고,
 - 제주도민 등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향후 연구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.
- 제주 항공수요는 종전 ‘사전타당성 조사’, ‘예비타당성 조사’를 참고, 향후 항공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55년 기준 4,109만명(국내선 3,796만명 / 국제선 313만명)으로 예측되었습니다.

○ 특히, 일부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**관광수용력·환경수용력** 포화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여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

□ 또한, 기존 제주공항과의 **역할분담**에 대해서는 **다양한 시나리오***를 제시하였고, 향후 항공교통이용자, 항공사, 공항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**추가 검토** 예정임을 밝혔습니다.

* 종전 ‘사전타당성 조사’, ‘예비타당성 조사’ 등에서 검토된 제2공항 운영방안 (제주 국내선 50%, 국제선 100% 처리)을 포함하여, ‘LCC(저비용항공사) 특화 운영’, ‘항공사별 분리’, ‘대한항공·아시아나 등 FSC 특화 운영’ 등

□ 특히, 성산읍에 건설될 제2공항은 **환경 및 소음피해 최소화**, **오름 등 자연 훼손 없는**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활주로 위치와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, 이날 보고회에서는 **6가지 대안**을 밝혔습니다.

○ 연구진은 향후 소음, 편입가구, 보존지역 중첩, 사업비 등을 종합 판단하여 **최종보고회까지 최적의 대안**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6가지 대안 중 기존 발표된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, 향후 ‘제2공항 역할분담에 따른 수요’, 시설배치 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변경 가능성 있음

□ 터미널의 경우 최첨단 스마트 기술, 제주 경관 및 친환경 요소의 반영 뿐만 아니라, **지역 주민이 터미널을 통해 문화·편의·의료·복지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‘공공시설 제공’** 방안도 향후 제시하고,

○ 공항 편입·주변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, 향후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적극 검토,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, '19.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에 지역 의견 수렴,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4.23.) >

- “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는 반쪽짜리.. 국토부 일방적 일정“
 - 반대위는 중간보고회가 피해지역 주민들은 참여않는 반쪽짜리 절차라며 반발
 - 반대위는 제2공항 근거인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중간보고회는 국토부의 일방적 일정이라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신공항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항공수요 예측**

- (개요) ‘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’ 등에 따라 인구, GRDP 변수를 이용 패널회귀 모형을 통해 수요 예측
- (검토) ‘55년 기준 4,108만명 예측(국내 3,795만명, 국제 313만명)
- * 사타 : 4,557만명(국내 4,000만명, 국제 557만명)
- 에타 : 4,043만명(국내 3,690만명, 국제 353만명)

□ **제2공항 역할 분담**

- (개요) 현 제주공항, 제2공항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예측된 4,108만명 제주 항공수요 배분
- (검토) 향후 이용자, 항공사, 운영자 의견 등 수렴하여 대안 선정

	대안1	대안2	대안3
현 제주공항	FSC(국제선, 국내선), LCC 일부	항공사별 + 외항사	LCC
제2공항	LCC 특화 + 외항사	항공사별	FSC + 외항사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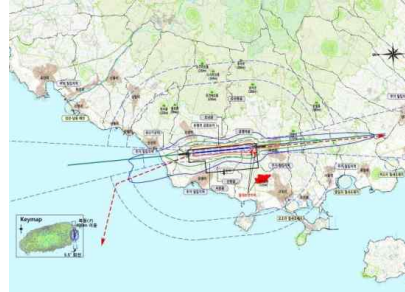


* 사타·에타 : 기존공항(국내선 50%), 제2공항(국내선 50%, 국제선 100%)

□ **주민상생 방안**

- (개요) 토지보상법·공항소음방지법 등 관계법령 검토, 추가 필요 사항은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생방안 마련
- (검토) 이주대책, 배후도시 조성, 광역교통체계·기반시설 지원, 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기수렴된 의견 검토, 향후 지속적 의견 수렴

□ 활주로 시설배치 계획

- (개요) 기존 계획안을 토대로 소음영향, 장애물, 비행절차, 자연보전, 지장물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활주로 대안 선정
- (검토) 검토안 중 소음, 편입가구, 환경성, 사업비 등 고려시 원안이 유리, 다만 역할분담 및 시설배치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원안	1안	2안
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절대보존지역 저촉없음 · 소음가구수 1,931가구 · 사업비 4.87조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측 1km 이동, 서쪽 5°회전 · 소음가구수 933가구 · 절대보존지구 저촉 · 사업비 360억원 감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측 2.2km 이동, 서쪽 6°회전 · 소음가구수 489가구 · 절대보존지구 저촉 · 사업비 1,085억원 감소
3안	4안	5안
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동측 400m 이동, 서쪽 5.5°회전 · 소음가구수 918가구 · 절대보존지구 저촉 · 사업비 225억원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동측 700m 이동, 서쪽 8°회전 · 소음가구수 1,269가구 · 절대보존지구 저촉 · 사업비 2,710억원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측 150m 이동, 동쪽 18°회전 · 소음가구수 1,276가구 · 절대보존지구 저촉 · 사업비 1,196억원 감소

□ 터미널 계획

- (개요) 최첨단 스마트 공항, 자연 경관 반영, 친환경, 주민 편의 시설 제공 등을 위한 터미널 계획
- (검토) 현 제주공항의 문제점 보완,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, 의료·복지·문화·상업 시설 등 공유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도 도모